

## 작품 개요

이 곡은 작곡자가 43세 때인 1964년 5월 8일 작곡되어 1964년 9월 8-9일 국립극장에서 열린 <KBS교향악단 교향악 연주회>에서 피아노 장혜원, KBS교향악단, 지휘 나운영에 의해 초연되었다. 이 곡은 신고전주의적 작품으로서 제1악장은 소나티네 형식으로 제1주제에서 Chime Chord를 사용함으로써 편경의 효과를 살렸으며, 제2악장은 복합2부분 형식, 제3악장은 론도형식으로 단2도의 음향을 애용하였다.

## 작품 해설

제1악장: Moderato, 소나티네 형식

1. 제1부 제1주제에서는 차임 코오드(Chime Chord)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편경과 비슷한 음색을 찾아냈다.
2. 제2주제는 병행5도와 병행4도를 사용하여 동양적 분위기를 살려 보았다.
3. 발전부에서는 제1주제와 제2주제를 동시에 발전시켰다.
4. 종결(Coda)은 제1주제를 재료로 썼으며 A장조의 <주요3화음의 부가6의 화음>으로 끝마쳤다.

제2악장: Andantino, 4/4 겹두도막형식. (AB+AC-카덴짜-연결)

1. A는 민속조의 멜로디에 주로 <감3화음>을 많이 사용하여 반음계적으로 처리하였다.
2. B에서는 4도와 5도의 병행법과 투영법을 사용하였다.
3. D는 9/8와 6/8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며 <3도화성>이 사용되었다.
4. 카덴짜에서는 제3악장의 주제를 암시했으며, 연결(Transition)은 B를 그대로 대용하였고 계속해서 제3악장으로 연결시켰다.

제3악장: Allegro, 2/4, 론도형식 (ABACAD-카덴짜-종결)

1. A가 피아노 독주로 시작될 때에는 중국풍(?)의 단순한 멜로디에 <단7의 화음(장3화음+단7도)>에 의한 병행법을 사용했으며, 이것을 관현악으로 받을 때에는 <4도화성>의 병행법을 사용하였다.
2. B는 6/8의 한국풍 멜로디에 일종의 <긋거리 장단>을 사용하였다.
3. C에서는 「도,미,파,솔,시」에 의한 유구음계와 이것을 단조화한 「라,도,레,미,솔」에 의한 계면음계를 교대로 사용했다.
4. D는 6/8의 한국풍 멜로디에 <타령장단>을 사용하였고, <3도화성>으로 처리하였다.
5. 카덴짜는 주로 A의 첫 음형에 의한 반복진행(Sequence)으로 되어 있다.
6. 종결은 제1악장의 서주를 재현시킴으로써 제1악장과의 유대를 꺾하였으며, A장조의 <주요3화음의 부가a의 화음>으로 끝마쳤다.

끝으로 이 작품은 A장조와 a단조를 방황하는-말하자면 A음을 중심으로 한 조성음악이며, 특히 악기편성법에 있어서 <플룻,오보에,클라리넷,파곳>에 대하여 <피콜로,잉글리시

혼,알토 색스폰,콘트라 파곳)을 한 묶음으로 하여 대조적으로 사용하였다.

- 「안일웅 나운영의 음악작품에 반영된 작곡기법에 대한 고찰」 중에서 -

The image shows a page of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for a symphony. At the top, it is marked "No. moderato (♩=110)" and "I". The score is arranged in staves for various instruments: Piccolo (Picc.), Flute (Fl.), Oboe (ob.), English Horn (E.H.), Clarinet in B-flat (Cl. in Bb), Saxophone (Sax), Trumpet (Tig.), Cornet in F (C-Tig.), Horn in F (Horn in F), Trombone (Tb.), Timpani (Timp. in A), Tom-tom (Tomb.), Bell, Piano (Piano), Violin I (VI. I), Violin II (VI. II), Viola (VI. a), Cello (C.), and Bass (B.). The notation includes notes, rests, and dynamic markings such as "f" and "acc.". The paper is aged and shows some staining.